

1930년대 경성부 위생과의 위생사업 운영

『경성부세입출결산(京城府歲入出決算)』을 중심으로

The operation of sanitation projects by the the Gyeongseongbu Sanitation Division during the 1930s

백선례*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위생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인 경성부 위생과에 주목하였다. 경성부 위생과는 1925년 이후에야 만들어졌다. 경성부 위생과는 위생기사, 위생기수, 소제감독, 소제순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성부 위생과에서 시행한 위생사업은 도로살수, 전염병 예방, 전염병원, 오물소제, 위생시험, 묘지, 화장장, 도수장 등이었다. 이들 위생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출 비중이 달랐다. 즉 개별 사업에 따라 급료의 비중이 큰 사업이 있었고 수용비의 비중이 큰 사업이 있었다. 또한 오물소제나 전염병예방과 같이 오물량과 전염병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체로는 실제 지출이 예산을 넘어서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지출을 줄이는 방식은 저급자를 채용하거나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지연하거나, 출장과 야근을 줄이는 식으로 인건비를 줄였다. 또한 비품비와 수선비, 잡비에서 절약하여 개선과 개축의 비용을 줄였고, 사용기한은 최대한 연장하였다.

이러한 위생 사업의 운영은 경성부이기에 가능했던 점도 있을 것이다. 경성부의 세출 규모는 다른 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총동원체제기에 들어서기 전인 1930년대를 중심으로 경성부의 위생사업 세출결산을 분석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행해진 최대치의 위생사업을 살펴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어 경성부 위생과, 위생사업, 오물소제, 전염병예방, 세출결산

- 차례**
- 머리말
 - 경성부 위생과(衛生課) 설치와 인적 구성
 - 경성부 세출 규모와 위생 사업 비중
 - 도시 청결 사업 : 오물소제비와 도로살수비
 - 전염병 방역 사업 : 전염병예방비와 전염병원비
 - 맺음말

1. 머리말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에서 시행된 위생사업¹은 조선총독부 위생사업의 시작점이자 그 시행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였다. 또한 식민지 시기 내내 경성으로 인

1 식민지 시기의 위생 사업이란 것은 상하수도 설비에서부터 전염병방역, 오물처분, 도수장과 화장장 관리, 청결관리, 위생사상 보급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들은 위생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하지만 이러한 사업 모두를 총망라하여 살펴보는 것은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범위를 좀 더 분명하게 한정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경성부세입출결산』에서 '위생과(衛生課) 주관 사항'으로 정리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경성부세입출결산』에서 위생과 주관사업으로 언급되는 것은 1. 전염병 예방, 2. 전염병원, 3. 위생시험, 4. 묘지 및 화장장(葬場), 5. 도축장(屠場), 6. 오물소제 7. 도로 살수의 일곱 가지이다. 이 일곱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경성부의 위생사업과 위생비 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가 몰려들고 도시 구역이 확장되면서 경성부가 담당하는 위생사업의 규모도 점차 커졌다. 그러나 식민 당국이 진행한 사업의 대부분이 그리하듯이 위생사업 역시 경성부가 예측하거나 혹은 호언장담한 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예산 부족’ 혹은 ‘재정 부족’ 문제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 위생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은 어디에 쓰였으며 얼마나 부족하였을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경성부 위생과에서 주관한 위생사업에는 오물소제, 도로살수, 전염병예방, 화장, 묘지, 도축 등의 사업이 있었다. 이들 각 사업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특히 오물소제 사업은 예나 지금이나 도시 위생행정에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업이므로 가장 상세하게 연구되었다.²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항기부터 식민지시기에 이르기까지 경성부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 및 주체, 분뇨 처리 과정의 변화, 분뇨 처리가 가진 문제점 등이 밝혀졌다. 경성의 전염병 발생 및 방역활동과 경성부의 전염병 원인 순화원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다.³ 특히 식민지기 경성에는 ‘전염병 도시’라는 오명이 붙었으므로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사정과 그 방역대책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경성부의 묘지와 화장장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⁴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경성부

에서 시행한 위생사업의 면면들이 밝혀졌으며, 당시의 위생 사업이 지닌 한계 등도 다루어졌다. 즉 위생사업의 주체, 과정, 문제 등 그 내용적인 면은 상세히 다루어졌으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경성부 위생과에서 주도한 위생 사업을 지출 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성부에서 작성한 『京城府歲入出決算』을 활용하였다. 현재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성부세입출결산』은 1922년, 1927년, 1932년, 1934년~1941년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기별로 내용 구성이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경성부세입출결산』은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출결산(이하 세입출결산)’, ‘일반회계세입출결산 설명서(이하 설명서)’, ‘일반회계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로 구성되었다. 먼저 ‘세입출결산’을 통해서 예산과 결산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매년 예산보다 덜 쓴 항목과 더 지출한 항목이 무엇인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산보다 덜 쓰거나 더 썼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성부 각 과(課) 주관 사업의 상세 진행상황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경성부의 세출 항목도 『조선총독부통계연보』나 『조선지방재정』보다 세목이 좀 더 자세하여 각 항목의 지출 내역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다. 『경성부세입출결산』은 1922년도 결산서부터 남아있지만, 1922년도 결산서는 매우 간략하여 위생사업 중에서도 전염병예방비, 전염병원비, 오물소제비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결산서가 집중되어 있는 193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1930년대와의 비교를 위해 1927년도 결산서 내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930년대 경성의 위생사업은 1941

2 김상은, 「『조선오물소제령』 실시 후의 경성부 청소행정의 구성과 운영」,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1, 도시사학회, 2019; 김은진, 「개항기 전 통적 오물 처리체계의 개편: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31, 도시사학회, 2022; 서호철, 「서울의 똥오줌 수거체계의 형성과 변화: 189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서울과 역사』 93, 서울역사편찬원, 2016.

3 김영수, 「1930년대 경성부의 위생시설과 그 평가」, 『근현대 서울의 공공의료 형성』, 서울역사편찬원, 2021; 김택중, 「경성부립순화병원, 그 역사적 사실과 해석」, 『연세의사학』 16-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의학사연구소, 2013; 이규원, 「『전염병 도시』 경성의 비판적 검토: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9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3; 이정, 「제국 신민의 전염병 도시 경성」, 『이화사학연구』 58, 이화사학연구소, 2019; 정민재, 「일제강점기 순화원의 설립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5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4 다카무라 료헤이,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 시대 서울: 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이항

아, 「만세전: 1919년 ‘만세’운동 이전 <묘지규칙>의 제도화 과정: 1910년대 경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5, 한국사회사학회, 2020; 정일영, 「일제 식민지기 死者공간의 배치와 이미지 형성: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중심으로」, 『사림』 57, 수선사학회, 2016.

년 이후 본격화되는 총동원체제 이전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위생사업의 최대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성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보다 뒤 시기이긴 하지만 총동원체제기(1940~1945) 경성부의 세입과 세출이 가지는 특징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⁵ 이들 연구에서는 『京城府一般經濟歲入出豫算書』를 활용하여 총동원체제기라는 특징적인 시기가 경성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특히 세출에 관한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수도·위생·사회사업을 사회개발비로 묶어 짧게나마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14개부의 『세입출예산서』를 활용하여 전염병 관리에 쓰이는 예산을 정리한 연구도 있다.⁶ 이러한 연구들을 참고로 하되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의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성부 위생과에 주목하여 그 기구와 인적구성을 정리하고, 경성부 위생과에서 이루어진 1930년대 위생사업의 운영을 『세입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성에서 1930년대 시행된 위생사업은 그 자체가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가장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이기에 그 실제 운영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위생사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 경성부 위생과 설치와 인적 구성

1905년 통감부에 설치되었던 위생과부터 1910년대 헌병경찰시기 경무총감부 위생과, 그리고 소위 ‘문화통치’ 하에서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의 구성과 변천에 대해

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잘 정리되었다.⁷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관청이었던 경무총감부가 폐지되고, 총독부에 경무국이 설치되었으며, 위생과는 경무국 산하에 한 과가 되었다. 또한 지방에서는 도 경무부장이 가졌던 위생사무 처리권한이 도지사에게 이관되면서 도 단위의 경무부 위생과도 들어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부(府) 단위의 위생과는 언제 설치되었을까.

적어도 경성부의 경우는 1925년 경성부 직제 개정을 통해 위생과가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1925년 10월 현재 경성부는 서무과, 내무과, 토목과, 수도과, 재무과의 5과 체제였는데, 경성부 부세(府勢)의 팽창에 따라 사무분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학무과와 위생과를 새로 신설하며 재무과는 세무과로 개칭하기로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신청하였다는 것이다.⁸ 1925년에 경성부에 위생과가 설치된 데에는 기사에서 언급된 부세 팽창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겠지만, 당시 부윤의 역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성부윤은 우마노(馬野精一)⁹였다. 1925년 6월 15일 제6대 부윤으로 부임한 그는 ‘위생제일주의’를 내걸었는데, 같은 해 10월에 바로 경성부에 위생과를 신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1925년 10월 이후에야 경성부에 위생과가 설치된 셈인데, 1925년 10월 이전 기사에서 종종 경성부 위생과를 언급한 기사도 적지 않다. 예컨대 1921년 1월 31

7 정근식, 「식민지 위생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 식민지 통치성의 시각에서」, 『사회와 역사』 90, 한국사회사학회, 2011.

8 「京城府職制改正 學務課 衛生課新設 財務課를 稅務課로 改稱」, 『매일신보』, 1925.10.10; 「京城府의 職制改正」, 『동아일보』, 1925.10.13.

9 1884년 아마구치현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1919년 8월 황해도 제3부장을 맡으며 조선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1921년 경상남도 경찰부장을 거쳐, 1922년 9월 경기도 경찰부장이 되었다. 1924년 3월 잠시 총독부 경찰관강습소장으로 있다가 12월 다시 경기도 경찰부장이 되었으며 1925년 6월 15일 경성부윤으로 부임하였다. 이후 1929년 1월 21일 함경남도 지사로 영전하였다. 1930년 전라남도 지사가 되었으나 1931년 9월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잠시 정계에 몸을 담았다. 1941년 조선해수공업 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경기도 경찰부장을 거쳐 경성으로 취임한 우마노는 기본적으로 경찰 관료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김대호, 「1920~1933년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과 경성부회 연구』, 2017, 65~67쪽).

5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40~1945년) 경성부 歲入構造의 변화와 府稅 확대」, 『역사문제연구』 28, 역사문제연구소, 2012;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40~1945년) 경성부의 세출 운영과 특성」, 『韓國史研究』 159, 한국사연구회, 2012.

6 백선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주요 도시(府) 세출예산과 전염병 관리」, 『의학사연구』 1, 고려대 여성의학사연구소, 2024.

일자 조선일보의 “경성부 위생과 전속의 상치호(常置乎)”나 1923년 6월 27일자 매일신보의 “부(府) 위생과장 경질”과 같은 기사 제목에는 경성부 위생과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실제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1920년부터 위생계의 의사를 부 전속으로 상치할 필요를 인정하는 신년도 예산에 편입”했다거나¹⁰, “경성부 위생계 주임 越川 주사” 후임으로 의학박사 가토(加藤賢)가 취임하였다는 내용이다¹¹. 즉 제목은 위생과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위생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21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경성의 위생기관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30만의 인구를 산하는 대도회”에서 위생기관으로는 “경성부내에 일개 미미한 위생계의 설치뿐임”을 언급하였다.¹² 그러나 이 가토박사는 다른 기사에서는 “위생과장”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¹³ 정리해보면 경성부 위생과는 1925년 10월 이후 경성부 직제 개정으로 새롭게 설치되었다. 1910년대 후반에는 제1과 내의 위생계로 존재하였고, 1920년대 초반에는 내무과 위생계로 존재하였지만,¹⁴ 당시 신문보도에서는 위생과와 위생계가 다소 혼동되어 쓰인 것으로 보인다.

경성부 위생과의 인적 구성 및 인원수를 살펴보면, 현재 조선총독부 직원록을 통해 경성부 위생과 직원 전체가 확인되는 해는 1935년부터 1939년까지 5개년 정도이다. 5개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 대해서는 경성부 소속의 위생기사, 청소감독장, 청소순시 등 위생과 관련 인원 숫자만 정리하였다. 1926년부터 확인되는 위생과장의 이름

및 1939년까지¹⁵ 경성부 위생과의 인적 구성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¹⁶

〈표 1〉경성부 위생과의 인원 구성 및 역대 위생과장(1926~1939)

	위생과장 이름	위생 기사	위생 기사	소제 감독장	소제 감독	소제 순시	서기	촉탁	합계
1926	森岡收	1	2	1	5	10			
1927	森岡收	1	2	1	5	10			
1928	森岡收	1	2	1	5	11			
1929	森岡收	1	2	1	6	12			
1930		1	3	1	5	11			
1931		2	3	1	6	11			
1932		3	3	1	6	10			
1933	藤本源市	2	3	1	6	10			
1934	荻野正俊	2	3	1	7	10			
1935	荻野正俊	2	4	1	4	9	5		25
1936	荻野正俊	4	7		7	10	7	2	37
1937	荻野正俊	3	6	1	6	10	7	2	35
1938	荻野正俊	3	8	1 (청소과장)	6	11	7		36
1939	荻野正俊	3	10	1 (청소과장)	12	12	7	1	46

출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 자료

- 비고: ① 1933년 위생과장인 藤本源市는 유일하게 이원주사(吏員主事) 겸 위생과장(소제감독장도 겸함), 나머지 위생과장은 위생기사로 위생과장을 겸함.
 ② 1935, 1936년에는 토목기사 한 명이 위생과에 배정되어 있으나 토목과 근무도 겸하므로 전체 인원에서 제외함.
 ③ 1936년만 유일하게 소제감독장이 없는데, 위생기사 한 명이 소제감독장을 겸함, 보통 소제감독장은 주사가 겸임
 ④ 1938년 이후 청소과 독립하였으나, 1938, 1939년도는 청소과 인원까지 정리

위생기사, 위생기사, 소제감독장, 소제감독, 소제순시 등이 위생과를 구성하는 직책인데, 보통 위생기사 중 한 명이 위생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33년 위생과장인 후지모토(藤本源市)만이 위생기사가 아닌 주사로서 위생과장으로 임명된 유일한 사례였다. 경성부 위생과에서 위생기사는 1~3명이 고정적으로 근무하였다. 이외에 소제감독

10 「京城府衛生課 專屬醫常置乎」, 『조선일보』, 1921.1.31.
 11 「府 衛生課長 更迭」, 『매일신보』, 1923.6.27.
 12 「사설」, 『조선일보』, 1921.7.22.
 13 「위생처분장 시찰」, 『매일신보』, 1924.1.15; 「小學生に流感が猖獗, 缺席患者伍百伍十名, 咳嗽の出る兒童は自發的に休校させよ, 京城府衛生課長加藤博士談」, 『경성일보』, 1925.2.11. 기사 제목에서는 위생과장이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위생계장으로 언급하였다.
 14 서현주, 「일제하 경성부 행정조직과 운영의 식민지성」, 『향토서울』 8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4, 133쪽, 1918년 3월 20일 당시 제1과는 서무계, 내무계, 학무계, 토목계, 위생계, 민적계로 구성되었다; 김상은, 앞의 글, 77쪽, 표1.

15 현재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선총독부 직원록에서는 1940년부터 경성부 소속 각 과장급 인사만 정리되어 있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마지막 접속일 2024.4.15.
 16 1940~1944년까지 경성부 각 과의 인원수는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40~1945년) 경성부의 세출 운영과 특성」, 222~223쪽,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장도 1명이 고정적이었으며, 소제감독은 1939년을 제외하면 5,6명 정도가, 소제순시는 10~12명 정도가 고정적이었다. 즉 경성부 위생과는 최소 17명~22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근무했던 것이다. 위생기사만은 1926년 2명에서 시작하여 1939년 10명까지 늘어나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1939년은 위생기사도 10명으로 최대치이지만 소제감독 역시 12명으로 늘어났다. 소제감독, 소제순시 등 주로 오물소제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위생과 인원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위생과 내에서 오물소제사업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이 있다. 또한 1935년에 비해 1936년부터 위생과의 규모가 커진 것은 1936년 경성부 구역확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성부 위생과의 역대 과장들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되었던 가토는 1925년 7월 교토 의과대학 부임 예정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위생과장의 직을 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초대 위생과장으로 취임되었다.¹⁷ 그 뒤를 이어 1926년부터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위생과장으로 등장한 이는 모리오카(森岡收)였다. 모리오카는 1926년부터 1929년까지 경성부의 위생기사로 있으면서 위생과장을 역임한 것 외에는 조선총독부 내 다른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다소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전염병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당시의 신문들에서 위생과장을 인터뷰하여 “위생과장談”이라는 제목을 달고 위생과장이 종종 등장하였는데 모리오카는 이러한 식으로 신문에 등장하는 것을 찾기도 어렵다. 오히려 1926년 7월 도로 살수를 둘러싼 토목과와 위생과의 의견 대립에서 “藤本 위생계장”이 언급되었다.¹⁸

위생계장으로 언급된 후지모토는 1926년 당시 소제감독이었다. 후지모토는 1921년 경기도의 도 경시(警

視)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24년 주사(主事)로 경성부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부 이원(吏員) 겸 소제감독장을 겸임하였다. 이후 1931년까지 경성부 위생부에서 소제감독장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32년과 1933년에는 위생과장을 겸임하였다.¹⁹ 1932년 2월 당시 “多田 수도과장과 함께 부청 근속 10년으로 과장급에서 최고참”이었으며, “역대 부윤의 신임을 받는 ‘심복(懷刀)’으로서 부 행정의 원만한 진행에 공헌”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²⁰ 1933년 10월 후지모토의 퇴직을 다룬 기사에서는 그를 “가토박사, 모리오카기사 2대의 위생과장에 봉사한 이후 현직에 취임”했다고 언급하였다.²¹ 이를 통해 앞서 언급했듯이 가토가 사실상 초대 위생과장으로 취임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1929년 모리오카 이후 1930년과 1931년에는 위생과장이 공석이었다가²² 1932년부터 후지모토가 위생과장직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후지모토 후임 후보도 언급되는데, “중래의 관습”대로 “곧 퇴관 소문이 있는 古賀 道 고등과장의 취임설이 가장 유력”한데, “내부적으로는 위생시험실 주임 荻野 박사의 취임을 희망하는 의향도 상당”하며, 또는 “순화원장인 椎葉 박사를 모시고, 荻野씨를 순화원으로 모시는 것”도 거론되었다.

이후 오기노(荻野正俊)가 경성부 위생과장이 되었고 고가(古賀國太郎)는 소제감독장이 되었다.²³ 오기노는 1921년 4월 조선총독부 지방병전염병연구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여, 1922년 12월 조선총독부의원 제2내과를 거쳐 1929년 11월 경성부 위생기사가 되었다. 이후 1930년

1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 자료.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마지막 접속일 2024.4.15.

20 「京城府廳點描(5): 古つはもの斷然光る: 藤本衛生課長」, 『조선신문』, 1932.2.2.

21 「府衛生課長藤本氏の退職」, 『조선신문』, 1933.9.20.

22 1931년과 1932년 총독부 직원록에서도 경성부 위생과장을 담당했던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마지막 접속일 2024.4.15.

23 「京城府衛生課長更迭: 荻野正俊博士就任: 古賀氏は掃除監督長に」, 『조선신문』, 1933.10.6.

17 「府衛生課長藤本氏の退職」, 『조선신문』, 1933.9.20.

18 「水かけ論で板挟みの衛生課: 撒水するなど土木課: まげ言と府民の聲」, 『경성일보』, 1926.7.14.

부터는 순화원에서 의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1933년 10월 경성부 위생과장이 된 이후 1942년 2월까지 그 직책을 유지하였다.²⁴ 1930년대 경성부 위생사업과 관련하여 그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성부 위생과에 장기 근속한 인물이었다. 이에 반하여 고가는 1917년 경성 종로경찰서 경부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1924년 전라남도 고등경찰과를 거쳐, 1927년과 1928년에는 전라남도 경무과장을 역임하였다. 1929년부터는 경성 동대문 경찰서장, 인천경찰서장을 거쳐 1933년에는 앞서 기사에 언급되었듯 경기도 고등경찰과장을 지내는 등 경찰 관료로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1934년 경성부 위생과장이 아닌 소제감독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1937년까지 계속 경성부 위생과 소제감독장으로 일했던 것이다.²⁵ 경찰 관료로서 고가의 경력은 이전 위생과장이었던 후지모토의 경력과 유사하며 이에 기사에서는 관습대로 고가가 위생과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경찰 관료로서 경력을 쌓고 고등과장을 역임한 인물이 위생과장이 되거나 유력 후보로 언급된 것은 식민지 조선의 위생 사업이 가진 특징, 즉 경찰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그러나 결국 위생과장은 의학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인 오기노가 배정되었으며, 고가는 소제감독장이 되었고, 오기노-고가 체제는 1930년대 경성부의 위생사업을 이끌어나갔다. 경성부 위생사업에서 전문가를 앞세우면서도, 소제감독장, 즉 경성부 위생사업의 가장 큰 사업인 오물소제를 담당할 인물은 전형적인 경찰 관료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위생사업에서 전문가와 경찰 간의 균형을 안배한 인사였다고 보인다.

3. 경성부 세출 규모와 위생 사업 비중

경성부 위생과의 개별 위생 사업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히 경성부 전체의 세출과 위생사업 비중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표 2>) 1927년 이미 세출 예산이 470여만 원을 넘긴 경성부 세출액은 1941년에는 약 5.5배 가량 늘어나 약 2,500만 원을 기록하였다. 결산액을 통해 경상부(經常部)와 임시부의 비중을 살펴보면, 세출에서 경상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1927년에는 50% 정도를 차지하다가 점차 줄어들어 1938년에는 21%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임시부는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전체 세출의 60~70%가 임시부에서 지출되었다. 이는 예산 증가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1927년을 기준으로 1941년까지 경상부의 세출 예산은 3.5배 정도 증가하지만, 임시부의 세출 예산은 6.5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인데 전체 세출에서는 1938년을 제외하면 예산액의 10%~30% 정도가 매년 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경상부와 임시부에서 더욱 현격하게 드러났다. 경상부는 1938년 이전까지 매년 예산의 5% 정도가 지출되지 않았고 1938년 이후에도 지출되지 않은 예산이 10% 정도에 그쳤지만, 임시부는 해마다 예산에 비해 지출되지 않은 비용에 격차가 매우 컸다. 1927년의 경우 예산액의 절반만 지출되었으며 이후에도 1938년의 3%를 제외하면 거의 20~30%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임시부의 경우 공사 진행 사정에 따라 예산 지출이 보류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예컨대 1935년 세출 임시부에서는 전염병원 개축비 중 7만 1734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을 보면 사무비 항목에서 1935년 시행할 공사의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한 관계로 1,376원을, 공사비 항목에

24 김대호, 앞의 글, 80쪽.

25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 자료.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ld=jw> 마지막 접속일 2024.4.15.

〈표 2〉 경성부 세출 경상부와 임시부(단위: 원)

		경상부(經常部)				임시부				세출합계	지수	차액 (예산-결산)
		금액	비율	지수	차액 (예산-결산)	금액	비율	지수	차액 (예산-결산)			
1927	결산	1,694,122	52.1%		96,173 (5.4%)	1,559,122	47.9%		1,382,792 (47.0%)	3,253,244		1,478,965 (31.3%)
	예산	1,790,295		100		2,941,914		100		4,732,209	100	
1932	결산	2,081,811	44.3%		113,143 (5.2%)	2,612,569	55.7%		906,711 (25.8%)	4,694,381		1,019,853 (17.8%)
	예산	2,194,954		123		3,519,280		120		5,714,234	121	
1934	결산	1,997,979	30.1%		108,196 (5.1%)	4,637,357	69.9%		626,260 (11.9%)	6,635,337		734,455 (10.0%)
	예산	2,106,175		118		5,263,617		179		7,369,792	156	
1935	결산	2,167,355	49.3%		120,766 (5.3%)	2,233,088	50.7%		393,270 (15.0%)	4,400,443		514,036 (10.5%)
	예산	2,288,121		128		2,626,358		89		4,914,479	104	
1936	결산	2,567,591	43.4%		141,730 (5.2%)	3,343,244	56.6%		702,686 (17.4%)	5,910,836		844,415 (12.5%)
	예산	2,709,321		151		4,045,930		138		6,755,251	143	
1937	결산	3,128,529	30.7%		177,375 (5.4%)	7,050,899	69.3%		1,849,267 (20.8%)	10,179,429		2,026,641 (16.6%)
	예산	3,305,904		185		8,900,166		303		12,206,070	258	
1938	결산	3,496,224	21.2%		294,318 (7.8%)	13,011,984	78.8%		411,699 (3.1%)	16,508,208		706,017 (4.1%)
	예산	3,790,542		212		13,423,683		456		17,214,225	364	
1939	결산	4,171,706	23.8%		411,553 (9.0%)	13,377,482	76.2%		2,798,648 (17.3%)	17,549,188		3,210,201 (15.5%)
	예산	4,583,259		256		16,176,130		550		20,759,389	439	
1940	결산	5,079,545	30.8%		445,883 (8.1%)	11,437,870	69.2%		5,905,246 (34.0%)	16,517,415		6,351,129 (27.8%)
	예산	5,525,428		309		17,343,116		590		22,868,544	483	
1941	결산	5,862,618	28.9%		672,508 (10.3%)	14,407,369	71.1%		4,894,080 (25.4%)	20,269,987		5,566,588 (21.5%)
	예산	6,535,126		365		19,301,449		656		25,836,575	546	

출전: 京城府, 『京城府歳入出決算』 각 연도판

비고: 경상부, 임시부, 세출합계에서 차액 항목은 해당연도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뺀 금액을 표시하였으며, () 안의 %는 지출하지 않은 예산액이 해당 연도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서 전염병 수용환자 다수로 구(舊)병동을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사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6만 8,590원을, 마지막으로 설비비 항목에서 똑같은 이유로 기구구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1,767원을 줄였던 것이다.²⁶ 임시부에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던 사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임시부보다는 경상부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경성부 위생 사업 관련비용은 대체로 경상부를 통해 지출되고 있으며 임시부에서도 일부 지출되기는 하지만 지출 내역과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위생 사업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임시부에서 지출된 내역 정도를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성부 세출에서 각 위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9개 항목 중 가장 지출이 높은 것은 오물소제로, 경상부 세출 중에서도 거의 10~2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상부 세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대체로 각각의 위생사업비 예산 자체와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데, 오로지 오물소제비만 예산 변동과 비중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²⁷ 그 다음으로는 전염병 예방비와 전염병원비가 2~4%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염병원비가 전염병예방비보다 많이 지출되었다. 이는 각도별로 전염병원이 설립되었던 지역이 주로 부 지역이었

26 京城府, 『京城府歳入出決算 昭和10年度』, 1936, 설명서 46, 錢 단위는 절사하여 인용함.

27 오물소제사업은 배출량에 따라 동원되는 인부 및 운반 마차와 차량이 결정되므로 결산액에 변동이 적지 않은데, 오물소제의 배출량은 예산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글에서는 각 해마다 예산 비중에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까지는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표 3〉 경성부 세출 중 위생 사업 관련(經常部 결산액)

	도로살수비	오물소제비	전염병예방비	전염병원비	검미비	위생시험비	묘지비	장재장비	도장비	경상부합계
1927	23,918	306,568	40,288	73,432	5,376	5,762			16,443	1,694,122
	1.4%	18.1%	2.4%	4.3%	0.3%	0.3%			1.0%	
1932	19,687	289,977	42,671	71,909	4,636	9,209	2,171	10,197	17,162	2,081,811
	0.9%	13.9%	2.0%	3.5%	0.2%	0.4%	0.1%	0.5%	0.8%	
1934	18,918	306,389	43,802	68,056	4,252	10,760	3,558	14,487	18,018	1,997,979
	0.9%	15.3%	2.2%	3.4%	0.2%	0.5%	0.2%	0.7%	0.9%	
1935	21,631	326,543	51,183	97,598	4,589	12,348	3,174	19,289	18,369	2,167,355
	1.0%	15.1%	2.4%	4.5%	0.2%	0.6%	0.1%	0.9%	0.8%	
1936	25,356	358,498	65,775	78,039	4,803	13,392	4,838	20,255	21,593	2,567,591
	1.0%	14.0%	2.6%	3.0%	0.2%	0.5%	0.2%	0.8%	0.8%	
1937	25,445	406,490	73,427	75,143	4,856	13,139	5,764	24,111	23,347	3,128,529
	0.8%	13.0%	2.3%	2.4%	0.2%	0.4%	0.2%	0.8%	0.7%	
1938	26,860	418,878	60,563	70,268	4,759	9,254	4,902	27,940	21,160	3,496,224
	0.8%	12.0%	1.7%	2.0%	0.1%	0.3%	0.1%	0.8%	0.6%	
1939	30,565	549,271	66,724	88,515	4,975	9,523	7,270	36,743	24,407	4,171,706
	0.7%	13.2%	1.6%	2.1%	0.1%	0.2%	0.2%	0.9%	0.6%	
1940	32,594	851,988	89,308	142,813	5,613	10,047	8,775	44,297	26,891	5,079,545
	0.6%	16.8%	1.8%	2.8%	0.1%	0.2%	0.2%	0.9%	0.5%	
1941	34,165	1,127,223	90,683	124,492	5,362	11,824	11,359	49,587	31,124	5,862,618
	0.6%	19.2%	1.5%	2.1%	0.1%	0.2%	0.2%	0.8%	0.5%	

출전: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각 연도판

던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경성부에는 순화원이 있었다. 그 외에 나머지 위생 사업들은 모두 1%가 채 안 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성부의 세출 중 경상부에서는 대략 25% 내외가 위생 사업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이제 이 위생 사업을 크게 도시 청결(도로살수비, 오물소제비)과 전염병예방(전염병예방비, 전염병원비)으로 나누어 개발 사업의 지출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²⁹

28 이러한 수치는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40~1945년) 경성부의 세출 운영과 특성」의 202쪽 〈표 1〉에서 정리한 위생비 비중과 차이가 있다. 이명학의 연구는 經常部와 臨時部를 합한 전체 세출에서의 비중을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29 세출 비중이 1%가 채 안 되는 기타 위생사업(검미비, 위생시험비, 묘지비, 장재장비, 도장비)은 부록 표로 정리하였다.

4. 도시 청결 사업: 오물소제비와 도로살수비

오물소제 사업은 금액면에서도 경상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경성부 위생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었다. 이에 오물소제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오물소제사업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겠다. 경성부의 오물소제 사업은 크게 분뇨처리, 진개(塵芥)처리, 도로 청소 및 구거(溝渠) 소제, 공동변소 소제 등 다섯 가지 업무를 아우르는 것이었다.³⁰

〈표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많은 인부들을 사역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전체 지출에서 잡급의 비율이 70~80%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경성부 내 오물수거는 인부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직접

30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9年度』, 1935, 사업보고서 事19~事21.

〈표 4〉오물소제비(결산액) (단위: 원, %)

	봉급	잡급	마필비	수용비	수선비	오물 운송비	잡비	합계 (결산)	예산	차액 (예산-결산)
1927	18,308	215,676	38,943	29,139	3,896		605	306,567	314,691	8,124
	6.0%	70.4%	12.7%	9.5%	1.3%		0.2%			
1932	16,841	217,825	18,194	25,361	4,533	5,924	1,299	289,977	296,503	6,526
	5.8%	75.1%	6.3%	8.7%	1.6%	2.0%	0.4%			
1934	15,740	228,084	17,387	23,950	2,819	12,115	6,294	306,389	301,747	-4,642
	5.1%	74.4%	5.7%	7.8%	0.9%	4.0%	2.1%			
1935	16,389	250,872	17,897	23,151	1,673	12,422	4,138	326,544	318,191	-8,353
	5.0%	76.8%	5.5%	7.1%	0.5%	3.8%	1.3%			
1936	17,164	272,072	23,951	23,004	1,861	16,185	4,260	358,498	352,728	-5,770
	4.8%	75.9%	6.7%	6.4%	0.5%	4.5%	1.2%			
1937	17,557	315,627	21,434	30,953	1,766	15,504	3,648	406,490	412,411	5,921
	4.3%	77.6%	5.3%	7.6%	0.4%	3.8%	0.9%			
1938		344,820	25,511	27,694	1,684	16,341	2,828	418,878	425,550	6,672
		82.3%	6.1%	6.6%	0.4%	3.9%	0.7%			
1939		449,815	42,874	34,288	1,242	17,330	3,723	549,271	560,795	11,524
		81.9%	7.8%	6.2%	0.2%	3.2%	0.7%			
1940		703,335	37,799	79,803	9,609	16,826	4,616	851,988	877,361	25,373
		82.6%	4.4%	9.4%	1.1%	2.0%	0.5%			
1941		928,818	48,305	120,782	5,330	19,504	4,484	1,127,222	1,244,315	117,093
		82.4%	4.3%	10.7%	0.5%	1.7%	0.4%			

출전: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각 연도판

수거하는 문전수거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다. 경성부는 직영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오물 수거 작업을 하였다. 인부들은 임시로 고용되거나 일용직이었고, 임금은 업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분노를 수거하는 인부의 인금이 가장 높았고 쓰레기 수거, 도로청소부가 제일 낮은 임금을 받았다.³¹ 오물소제에 참여한 인부들의 면면은 피복비가 지출된 대상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³² 또한 봉급의 대상자들을 보면 앞서 경성부 위생과 구성에서 확인했던 청소감독장, 청소감독, 청소순시, 위생기사 등이 오물소제 사업을 담당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들 인부들 외에 오물소제사업에서 중요한 대상을 하나 더 꼽자면 말이었다. 분노수거와 진개수거는 모두 운반마차를 통

31 김상은, 앞의 글, 78쪽.

32 청소감독, 청소순시, 기술공, 대공(大工), 인부취체(取締), 대장장이(鐵冶工), 대장장이조수, 마부취체(取締), 자동차운전수, 자동차운전수조수, 편자(蹄鐵)공

해 운반되었기 때문에 마필비와 오물운송비 항목이 있으며, 오물소제사업에서 마필비는 수용비와 비슷한 비중으로 지출되었다. 마필비에서는 사양비 항목이 크게 차지하며, 수선비에서는 마구간 수선비, 회료에서는 마구간 당번, 피복비에서는 마부취체, 편자공 등을 통해 오물소제사업에서 말 관리가 중요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수거한 분노처리는 용두리처분장, 아현리처분장, 이촌동처분장, 은평, 뚝섬 등에서 반출량 전부를 경성비료회사에 인도하였다.³³ 진개처리의 경우 수거한 진개의 일부를 동양진소(塵燒)주식회사에 인도하고 나머지는 매립으

33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0年度』, 1936, 사업보고서 11. 경성부와 계약한 분노처분업체는 시기별로 달라졌다. 한성위생회에서 부제 실시 이후 경성부와 계약을 이어가던 남산상회는 1920년 6월 사업을 중단하였다. 1922년까지는 경성공업회사가 경성부와 계약하였고, 1924년부터 1927년까지는 지구비료가, 1927년부터 1937년까지 경성비료주식회사가 분노 처리를 담당하였다(김상은, 위의 글, 79쪽).

로 처리하였다.³⁴ 1932년 당시 경성부의 공동변소는 70개 (1935년에는 72개소로 증가)로 개축이 필요한 것이 대다수였으므로 매년 2,3개소씩 개선작업을 해오고 있지만, 매우 더딘 속도였다. 다만 청소, 소독은 매일 10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1인 5개~7개소를 담당하도록 하고 매일 2회 이상 순회하게 하였다.³⁵

오물소제 사업은 사람이 배출하는 오물을 처리하는 것이다 보니 경성부와 같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에서는 예상 산출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표 4>에서 확인되듯이 지출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1934년의 초과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물증량으로 인해 임시로 고용한 마부와 말의 사역이 예정보다 늘었던 점과, 오물 격중에 따라 마구(馬具) 구입과 운반용기 수리 등에 지출이 예정보다 증가했던 점, 진개소 각료에서 일부 도로 개수공사 때문에 근거리인 진소회사에 다량으로 운반하여 소각했던 점, 마차사고³⁶로 손해배상금과 병문안 등의 위문금 등의 지출이 발생한 점 등 때문이었다.³⁷ 1935년에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 분뇨와 진개 모두 심하게 얼어서 수거에 심한 지장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인마(人馬)를 사역하여 지출이 증가하였고, 또한 말의 식량 가격 등귀, 병마 발생³⁸ 등으로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사고 발생으로 위문금 등에서도 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원(雇員)에서 결원이 생겼음에도 보충이 지연되었고, 특별비품에서 분뇨탱크의 구입을 보류하였으며, 하계 강우로 자동차 사용 횟수가 감소하면서 휘발유 사용도 줄었다. 또한 겨울 혹한으로 원거리 분뇨운송을 폐지하고 근거리만 운송했으므로 지출이 감소하

여 결국 예산액보다 지출이 줄어들었다.³⁹ 1938년에도 마찬가지로 고원 중 2명이 일시 결원이었고, 비교적 저급자를 채용했으며, 상용인(常傭人)에 결원이 있었는데 보충이 지연되다가 저급자를 채용하여 지출을 줄였다. 또한 마부가 부족하자 숙직 마부를 줄이고 마구간 상용마부를 매일 밤 4명씩 일정 시간 교대로 순회하게 하여 지출을 줄였다. 또한 마필비에서 폐사나 기타 사고로 인해 말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출이 줄었고, 수용비에서는 통신운반비에서 각 출장소의 전화사용 제한, 의복 사용 기간 연장 등으로 비용을 줄였다.⁴⁰

한편 오물소제 관련 시설에 대한 비용은 임시부에서 지출되었는데 예컨대 1937년에는 광희문분실(分室) 이전 증축비, 마필보충비, 공동변소개축비, 분료저류구(貯留構) 장비비, 분뇨유송(流送)설비비 등이 임시부에서 지출되었다.⁴¹

다음으로 도로 살수 작업을 살펴보면, 경성부 위생과는 도로 살수를 1년 3기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제1기는 4월부터 10월, 제2기는 11월과 3월, 제3기는 12월부터 2월까지였다. 제1기에는 살수구역(區)을 6개로, 제2기에는 5개로, 제3기에는 4개구(區)로 구분하여 각 구에 자동차 1대씩을 배치하여 실시하였다.⁴² 즉 제1기인 4월부터 10월 사이, 봄부터 가을까지 도로 살수 작업이 가장 활발히 시행되었다.

1934년 당시 경성부는 살수전용자동차 6대⁴³, 살수세척 겸용 자동차 3대 모두 9대를 가지고 운용하였다.⁴⁴ 1934년의 경우 살수 실시일수는 254일, 살수 총 횟수 3만 2,230회, 총 시간 8,848시간, 살수 총 수량 38만 9,470석

34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0年度』, 1936, 사업보고서 12.

35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7年度』, 1933, 사업보고서 事衛5.

36 실제로 운송마차와 관련된 사고는 신문기사로도 종종 보도되었다. 「馬車에치어 人夫가即死」, 『동아일보』, 1933.10.24; 「馬車와 電車衝突」, 『동아일보』, 1934.1.4.

37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9年度』, 1935, 설명서 出15~出17.

38 「무서운 炭疽病 府內서 發生 경성부청의 말이 돌연 죽어 當局者 防疫에 腐心」, 『매일신보』, 1935.4.13; 「馬病發生」, 『조선중앙일보』, 1935.4.14; 「廿年間이나 繁殖하는 놀라운 炭疽病菌」, 『매일신보』, 1935.4.16.

39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0年度』, 1936, 설명서 17, 18.

40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3年度』, 1939, 설명서 17, 18.

41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2年度』, 1938, 세입출결산

42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9年度』, 1935, 사업보고서 事18, 事19.

43 「경성부 위생과에서 새롭게 살수자동차 일대를 구입했다. 이로써 부의 살수자동차는 6대가 되어 성히 물을 뿌린다고.」 「今日의話題」, 『경성일보』, 1926.7.3. 1926년 7월경부터 살수자동차 6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 1935년에는 7대로 줄어들었다.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0年度』, 1936, 사업보고서 10.

(石), 주행 거리 수는 약 5만 8033리(里)에 해당하였다. 도로 세척 작업은 전면포장로를 2개 구로 나누어 자동차 3대로 노면 오염 정도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였으며, 교통 사정상 야간에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세척 및 살수 작업으로 소비된 휘발유 총량이 3만 4,920입(呎)이었다.

〈표 5〉 도로살수비(결산액) (단위: 원, %)

	봉급	잡급	수용비	수선비	잡비	합계(결산)	예산	차액(예산-결산)
1927		8,588	14,859	288	184	23,918	25,297	1,379
		35.9%	62.1%	1.2%	0.8%			
1932	957	8,733	9,716	170	111	19,687	20,159	472
	4.9%	44.4%	49.4%	0.9%	0.6%			
1934	1,056	7,243	10,426	188	5	18,918	20,039	1,121
	5.6%	38.3%	55.1%	1.0%	0.0%			
1935	1,128	8,011	12,167	259	65	216,31	22,277	646
	0.5%	3.7%	5.6%	0.1%	0.0%			
1936	1,152	9,083	14,527	148	446	25,356	26,315	959
	4.5%	35.8%	57.3%	0.6%	1.8%			
1937	1,224	8,596	15,485	138	2	25,445	27,463	2,018
	4.8%	33.8%	60.9%	0.5%	0.0%			
1938	9,618	17,239	371	3	27,231	29,543	2,312	
	35.3%	63.3%	1.4%	0.0%				
1939	9,712	20,501	350	2	30,565	32,859	2,294	
	31.8%	67.1%	1.1%	0.0%				
1940	10,105	20,453	1,441	596	32,594	35,860	3,266	
	31.0%	62.7%	4.4%	1.8%				
1941	9,790	24,039	335	2	34,165	40,288	6,123	
	28.7%	70.4%	1.0%	0.0%				

출전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각 연도판

이러한 도로 살수 작업에 지출되는 비용을 보면(〈표 5〉) 잡급 비중이 30% 정도로 이 비용은 주로 운전수에게 지급되었으며, 수용비가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도로 살수의 수용비 중에서도 지출이 큰 것은 특별비품과 신탄유류였다. 특별비품은 자동차 수선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었고, 신탄유류의 대부분은 휘발유였다.

도로 살수 작업은 대체로 결산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다. 도로 살수 작업에서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1927년에는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 및 공상자(公傷者) 치료비가 늘어났다.⁴⁵ 1936년에는 살수작업 중 자동차운전수 한 명이 부상하여 치료비가 지출되었으며, 이 사고로 예산에 없는 수선으로 특별비품비가 증가하였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위문금 및 입원치료비 등으로 잡비의 손해배상금 지출이 증가하였다.⁴⁶ 또한 살수자동차의 노후화로 인한 부품 교체 때문에도 지출이 증가하기도 하였다.⁴⁷ 대체로 노후 자동차로 인한 부품교체와 예상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결산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살펴보면, 용인료의 경우 자동차운전수에서 고급자를 정리하고 저급자를 채용했으며⁴⁸, 임시운전수의 일급을 인하여 채용하였다. 또한 소모품비에서 하계강우가 많은 해에는 살수 횟수가 줄어들면서 인부 사역 및 휘발유의 사용량이 감소하여 지출이 줄어들기도 하였다.⁴⁹ 수선비에서는 수선 개소를 줄였으며, 우물 준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물 준설비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을 감소시켰다.⁵⁰ 이렇게 저급자를 채용하고 수선비와 잡비 등에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다른 위생 사업에서도 흔하게 활용되는 방식이었다.

5. 전염병 방역 사업 : 전염병예방비와 전염병원비

전염병예방비에서는 세출비 항목에 종두비, 과리기타구제비, 전염병궁민구호비 항목이 추가되었다.(〈표 6〉) 또

45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2年度』, 1928, 설명서 36.
 46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0年度』, 1936, 설명서 28.
 47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9年度』, 1935, 설명서 出10;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0年度』 1936, 설명서 14.
 48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0年度』, 1936, 설명서 14;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1年度』 1937, 설명서 28.
 49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2年度』, 1928, 설명서 36;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9年度』, 1935, 설명서 出10;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0年度』, 1936, 설명서 14.
 50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1年度』, 1937, 설명서 12.

(표 6) 전염병예방비(결산액)

	보급	잡급	수용비	종두비	구제비	수선비	공민취급비	잡비	합계 (결산)	예산	차액 (예산-결산)
1927	5,866	8,307	14,917	6,383	2,928	392	1,482	13	40,288	42,300	2,012
	14.6%	20.6%	37.0%	15.8%	7.3%	1.0%	3.7%	0%			
1932	5,372	17,373	7,900	8,849	2,566	259	326	26	42,671	46,248	3,577
	12.6%	40.7%	18.5%	20.7%	6.0%	0.6%	0.8%	0.1%			
1934	4,892	18,653	10,644	6,251	2,046	61	192	1,063	43,802	48,366	4,564
	11.2%	42.6%	24.3%	14.3%	4.7%	0.1%	0.4%	2.4%			
1935	5,515	19,751	15,223	6,668	2,177	197	475	1,178	51,183	53,876	2,693
	10.8%	38.6%	29.7%	13.0%	4.3%	0.4%	0.9%	2.3%			
1936	8,873	25,427	17,936	8,237	2,398	168	205	2,531	65,776	70,987	5,211
	13.5%	38.7%	27.3%	12.5%	3.6%	0.3%	0.3%	3.8%			
1937	9,739	27,980	18,493	9,019	2,753	247	277	4,919	73,427	76,602	3,175
	13.3%	38.1%	25.2%	12.3%	3.7%	0.3%	0.4%	6.7%			
1938		22,405	18,292	11,801	2,820	249	538	4,458	60,563	67,043	6,480
		37.0%	30.2%	19.5%	4.7%	0.4%	0.9%	7.4%			
1939		25,451	19,088	13,502	2,585	467	1,269	4,362	66,724	65,670	-1,054
		38.1%	28.6%	20.2%	3.9%	0.7%	1.9%	6.5%			
1940		32,276	37,777	8,751	2,879	1,835	892	4,899	89,298	93,909	4,611
		36.1%	42.3%	9.8%	3.2%	2.1%	1.0%	5.5%			
1941		39,985	29,353	11,219	3,046	862	251	5,968	90,683	90,241	-442
		44.1%	32.4%	12.4%	3.4%	1.0%	0.3%	6.6%			

출전: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각 연도판

비고: 구제(驅除)비는 파리 및 기타구제비를, 공민취급비는 전염병공민취급비를 줄여서 표시, 1937년부터 잡비에 청결비 포함.

한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것도 세출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다. 각각의 지출 비율을 보면 잡급이 30~40%, 수용비가 30~40%로 비슷하게 지출하고 있고, 종두비가 15~20%, 파리 등의 구제비는 5% 내외 정도이다. 잡급의 용인료 항목을 보면 의사 외에 전염병예방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동차운전수, 소독수, 기관수, 간호부, 기타 잡역부 등이었다. 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우물 굴착, 야채 세척장 설치, 환자운송차와 소형자동차 구입 등의 비용은 임시부에서 지출되기도 하였다.⁵¹

전염병예방비는 해당 시기 전염병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염병 환자 발생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비도 종종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경성부에서는 두 해 정도만 예산을 초과했다. 1939년에는 디프테리아 유행으로 경성부 전반에 예방주사를 실시하면서 전체적인 지출이 증가하여, 종래 예방주사반 1반에 임시간호부 2명을 배치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고 인부 사역도 줄이는 등 절약에 노력했지만 결국 결산액이 예산을 초과하였다. 또한 종두비에서도 북선지방의 두창 예방을 위해 부민 50만 명을 대상으로 임시종두를 시행하였고, 임시종두가 2차, 3차로 증가하면서 약품 및 위생재료, 통신운반, 기타 비용이 같이 증가하였다.⁵² 1941년에는 비품 수리와 제잡품, 통신운반비에서 물가 등귀에 따른 지출 증가가 있었고, 무엇보다 종두비에서 종두 사무 번잡으로 임시고원 채용이 늘었고, 약품 및

51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4年度』, 1940, 세입출결산;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5年度』, 1941, 세입출결산.

52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4年度』, 1940, 설명서 12, 13.

위생재료비에서도 약품재료 가격 등귀로 지출이 증가하였다.⁵³

1933년에는 직원 중 공무로 인한 전염병 감염자가 생겨 예방종사원 수당이 증가하였고, 연말 경성부내 두창환자 유행으로 임시 중두와 정기 중두를 병행하면서 인건비 및 각종 재료의 구입 등에서 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서 지출을 줄여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⁵⁴ 1935년 경성에서 장티푸스가 크게 유행하였을 때에는 환자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야간작업이 증가하였고, 소독 및 자동차 세척 등에 예정 이상으로 수도를 사용해서 소모품비에서 전기 및 수도 항목이 증가했다. 위생 사상 보급을 위해 선전포스터 뼈라 인쇄, 방역 전람회 개최 등으로 예산 이상의 지출을 했다. 그러나 봉급과 잡급 등 인건비에서 실제 지급액이 예정평균액에 미치지 못했고, 용상(傭上) 일수도 예정보다 적었기 때문 등으로 지출이 감소하였다.⁵⁵ 1937년에는 1월 이후 발생한 발진티푸스로 인해 환가 소독이 증가하면서, 방역사무용 자동차, 소독기 등의 급속 수리에 지출이 증가하였고, 방역자동차용 휘발유, 소독기용 석탄 등의 사용도 증가하였으나 장티푸스 예방주사 인원 및 중두 시행 인원 감소로 결산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⁵⁶ 앞서의 다른 위생 사업에서도 확인했듯이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예산 초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경성부의 전염병원은 순화원⁵⁷으로 전염병원비에서 언급되는 비용은 순화원 운영 비용이라 볼 수 있다. 전염

병원비는 세출비 내역 중 잡급이 30~35% 내외, 수용비가 60% 가량으로 수용비 비중이 높았다.(<표 7>) 잡급에서 용인료 항목을 보면 전염병원에서 일하는 직군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균검사조수, 한약조수도 있고, 순시(巡視)도 근무하며, 화부, 소사, 취사부(賄夫), 전화교환수까지 다양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직군들이 일하고 있지만 수용비가 더 높은데, 병원이다 보니 수용비 내에서도 연료비와 회료(식비)⁵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실제로 소모품비의 자세한 사용 내역을 보면 가스 및 전력에서 전동기 증가 및 고압기관 설치로 전력 사용이 증가하였고, 수도에서 수세변소 및 욕조 증가에 의해 사용 수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계 중 입원환자를 신관 병실에 수용한 결과 연료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 연료비가 감소하였고, 회비에서는 장티푸스 입원환자 일시 증가로 환자동행자 회료가 부족할 뻔하였다가 동계에 장티푸스 종식으로 예정된 회료에 미치지 못하여 지출이 감소하였다.⁵⁹

전염병원비에서도 두 해에만 결산액이 예산을 초과하였는데, 1938년의 경우 발진티푸스 환자 수용 격증으로 인한 결과였다. 즉, 발진티푸스 환자 대부분이 빈곤자였기 때문에 침구와 병원복 대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또한 환자 수 증가로 신탄유류, 전등, 가스, 전력 등 제반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였고, 식비 또한 증가하면서 수용비에서 많은 지출이 생겼다.⁶⁰ 1941년 역시 입원 환자에 따라 임시의사 채용 일수와 숙직인원이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오물수거료가 증가하면서 결산이 예산을 초과하였다.⁶¹

전염병원비 역시 전염병의 발생, 특히 입원 환자의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늘 존재하였으나, 입원 환자 증

53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6年度』, 1942, 설명서 出經18, 出經19.

54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7年度』, 1933, 설명서 出10~出12.

55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0年度』, 1936, 설명서 14~16.

56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2年度』 1938, 설명서 13, 14.

57 1914년 개원하여, 증가하는 전염병 환자를 감당하기 위한 개축·확충 공사를 시작하여 1933년 제1기 공사를 완료하였다. 여전히 환자 수용에 부족하였으므로 1935, 1936년 증축을 시행하여 1936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다(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1年度』, 1937, 사업보고 30, 병원 증개축에 필요한 비용은 경성부가 아닌 임시부에서 지출되었다). 순화원의 설립 및 변천 과정에서 대해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잘 정리되었다. 이 글에서는 운영비용에 집중하여 정리하였다.

58 회료에는 어떤 일을 필요한 비용, 즉 경비와 식비라는 의미가 있는데, 회부가 따로 존재하고 입원환자의 수가 예정에 미치지 않아 회비 지출이 줄었다는 내용(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0年度』, 1936, 설명서 17)이 있는 것을 보아 식비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59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1年度』, 1937, 설명서 34.

60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3年度』, 1939, 설명서 16, 17.

61 京城府, 『京城府歲入出決算 昭和16年度』, 1942, 설명서 出經22, 出經23.

〈표 7〉 전염병원비(결산액) (단위: 원, %)

	봉급	잡급	수용비	수선비	잡비	합계(결산)	예산	차액(예산-결산)
1927	8,036	18,550	44,294	2,359	193	73,432	79,847	6,415
	10.9%	25.3%	60.3%	3.2%	0.3%			
1932	11,417	20,522	38,754	1,010	206	71,909	73,792	1,883
	15.9%	28.5%	53.9%	1.4%	0.3%			
1934	11,414	23,369	32,545	567	160	68,056	70,890	2,834
	16.8%	34.3%	47.8%	0.8%	0.2%			
1935	12,033	28,854	54,452	2,096	163	97,598	108,503	10,905
	12.3%	29.6%	55.8%	2.1%	0.2%			
1936	12,041	25,580	37,487	2,849	82	78,039	80,334	2,295
	15.4%	32.8%	48.0%	3.7%	0.1%			
1937	12,482	27,587	34,641	399	34	75,143	85,656	10,513
	16.6%	36.7%	46.1%	0.5%	0.0%			
1938		24,145	45,495	594	34	70,268	68,092	-2,176
		34.4%	64.7%	0.8%	0.0%			
1939		26,431	56,100	5,937	48	88,515	90,412	1,897
		29.9%	63.4%	6.7%	0.1%			
1940		36,953	99,540	6,235	85	142,813	152,015	9,202
		25.9%	69.7%	4.4%	0.1%			
1941		41,928	75,434	4,408	2,723	124,492	124,455	-37
		33.7%	60.6%	3.5%	2.2%			

출전: 京城府, 『京城府歳入出決算』 각 연도판

비고: 1941년 잡비에 방호비 포함

가로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소모품 등을 절약하였고, 대체로 저급자를 채용하거나 결원 보충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하는 식으로 인건비를 줄여나갔다.⁶²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경성부 위생과의 주관으로 시행된 위생사업의 운영을 『경성부세입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위생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인 경성부 위생과에 주목하였다. 도 단위의 위생과 즉 경기도

경무국 위생과는 1920년대 초반에 지방제도 정비와 함께 만들어졌지만 부 단위, 특히 경성부 위생과는 1925년 이후에야 만들어졌다. 경성부 이외의 다른 부 단위에서는 1939년 당시 평양부 정도에만 위생과가 따로 존재하였다.⁶³ 부 단위에서 위생과가 따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경성부 위생과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성부 위생과는 위생기사, 위생기수, 소제감독, 소제순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소제감독, 소제순시가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이 주로 담당하는 사업인 오물소제 자체가 위생과 뿐 아니라 경성부 주요 사업일 정도로 큰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생과장은 위생

62 京城府, 『京城府歳入出決算 昭和7年度』, 1933, 설명서 出13; 京城府, 『京城府歳入出決算 昭和9年度』, 1935, 설명서 出14; 京城府, 『京城府歳入出決算 昭和12年度』, 1938, 설명서 16.

6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 자료.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마지막 접속일 2023.11.15. 평양부의 경우 1939년에만 위생과 존재가 확인 가능하다.

기사들이 주로 담당하였다면, 소제감독장은 주로 경찰 관료계 인물이 담당하여 위생과 내에서 위생 전문 인력과 경찰 관료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부 위생과 단위에서 주관한 위생사업을 세출 항목으로 살펴보자면, 도로살수, 전염병예방, 전염병원, 오물소제, 검미, 위생시험, 묘지, 화장장, 도수장 등이었다. 이들 위생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출 지출 비중이 달랐다. 즉 개별 사업에 따라 잡급의 비중이 큰 사업이 있고 수용비의 비중이 큰 사업이 존재하였다. 또한 오물소제나 전염병예방과 같이 오물량과 전염병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체로는 실제 지출이 예산을 넘어서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40년 이후로는 더욱 심해져 예산액의 상당수가 지출되지 않고 이월되었다.

지출을 줄이는 방식은 저급자를 채용하거나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지연하거나, 출장과 야근, 숙직 횟수를 줄이는 식으로 인건비를 줄였다. 또한 비품비와 수선비, 잡비에서 절약에 노력하여 개선과 개축의 비용을 줄이고, 사용기한은 최대한 연장하였다. 이러한 위생 사업의 운영은 경성부이기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다. 경성부의 세출 규모는 다른 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1930년경에도 부산의 2배 정도였다. 전염병예방과 관련된 세출예산은 1930년 당시 경성을 제외한 13개부의 전염병 관련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⁶⁴

따라서 본격적인 총동원체제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 경성부 위생사업의 세출결산 분석은 식민지 조선에서 행해진 최대치의 위생사업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성부의 위생사업 운영의 기초는 식민지 위생사업 운영의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 및 한계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도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읍면 지

역의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수도’로서의 경성부 위생사업 운영은 살펴봤지만, ‘식민지’ 수도로서의 경성, 즉 그 식민지성이 드러나는 지점은 충분히 파고들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일본과 대만의 주요 도시에서 이루어진 위생사업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이루어진 위생사업으로 틀을 넓혀 상호 비교가 이루어진 후에야 경성부 위생사업이 가진 특징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64 백선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주요 도시(府) 세출예산과 전염병 관리」, 『의학사연구』 1, 2024.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경성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京城府, 『京城府歳入出決算』 1922, 1927, 1932, 1934, 1935, 1936, 1937, 1938, 1940, 1941년도판.

2. 단행본 및 논문

김상은, 「『조선오물소제령』 실시 후의 경성부 청소행정의 구성과 운영」,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21, 도시사학회, 2019.

김영수, 「1930년대 경성부의 위생시설과 그 평가」, 『근현대 서울의 공공의료 형성』, 서울역사편찬원, 2021.

김은진, 「개화기 전통적 오물 처리체계의 개편: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31, 도시사학회, 2022.

김택중, 「경성부립순화병원, 그 역사적 사실과 해석」, 『연세의사학』 16-2,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2013.

다카무라 료헤이,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 시대 서울: 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5, 서울사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박지영, 「식민지 공중위생 지식의 형성과 그 유산: 위생시험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의사학』 31-2, 대한의사학회, 2022.

백선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주요 도시(府) 세출예산과 전염병 관리」, 『의학사연구』 1, 고려대여성학사연구소, 2024.

서호철, 「서울의 똥오줌 수거체계의 형성과 변화: 189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 반까지」, 『서울과역사』 93, 서울역사편찬원, 2016.

연구모임 공간담화·도시사학회, 『서울은 기억이다:오늘의 서울을 만든 시공간의 역사』, 2023.

염복규 외,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과 경성부회 연구』, 서울역사편찬원, 2017.

이규원, 「『전염병 도시』 경성의 비판적 검토: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90, 2023.

이정, 「제국 신민의 전염병 도시 경성」, 『이화사학연구』 58, 이화사학연구소, 2019.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40~1945년) 경성부의 세출 운영과 특징」, 『한국사연구』 159, 한국사연구회, 2012.

_____, 「총동원체제기(1940~1945년) 경성부 歳入構造의 변화와 府稅 확대」, 『역사문제연구』 28, 역사문제연구소, 2012.

이향아, 「만세전:1919년 만세 운동 이전 <모지규칙>의 제도화 과정: 1910년대 경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5, 한국사회사학회, 2020.

정근식, 「식민지 위생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 식민지 통치성의 시각에서-」, 『사회와 역사』 90, 한국사회사학회, 2011.

정민재, 「일제강점기 순화원의 설립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5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정일영, 「일제강점기 『모지규칙』을 통해 본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간극: 조선인의 반응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_____, 「일제 식민지기 死者공간의 배치와 이미지 형성: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중심으로」, 『사람』 57, 수선사학회, 2016.

3. 기타자료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
 일본국회도서관(<https://dl.ndl.go.jp/>)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Abstract

The operation of sanitation projects by the the Gyeongseongbu Sanitation Division during the 1930s

Baek, Seon-Lye |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Gyeongseongbu(京城府) Sanitation Division(衛生課), the bod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sanitation projects. While the Gyeonggi-do Police Department's Sanitation Division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1920s, the Gyeongseongbu Sanitation Division was created after 1925. Apart from Gyeongseongbu, only Pyongyang had its own Sanitation Division in 1939.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 of the Gyeongseongbu Sanitation Division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a separate Prefecture Sanitation Division from an early stage.

The Gyeongseongbu Sanitation Division consisted of sanitary engineers, sanitation technicians, cleaning supervisors, and cleaning patrols. Cleaning supervisors and patrols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the personnel. This was because sewage cleaning, which they primarily handled, was a major project of the Gyeongseongbu. Additionally, the chief of the Sanitation Division was mainly a sanitation engineer, while the chief of the cleaning supervisory department was mainly a police bureaucrat. This was done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sanitation specialists and police bureaucrats within the sanitation division.

Sanitation projects implemented by the Gyeongseongbu Sanitation Division included road sprinkling,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sewage cleaning, sanitation testing, cemeteries, crematoriums, and slaughterhouses. Expenditure distribution vari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roject. Some projects had a higher proportion of salary expenses, while others had higher accommodation expenses. Sewage cleaning an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in particular, often exceeded budgets due to unpredictable sewage volume and disease occurrences. However, generally, actual expenditures often did not exceed the budget, especially worsening after 1940, wher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budget was carried over without being spent.

Methods to reduce expenditure included hiring low-ranking personnel, delaying vacancies without replenishment, reducing travel and night shifts to cut labor costs. Additionally, savings were made on equipment, repair, and miscellaneous expenses, reducing the cost of improvements and renovations, and extending the period of use as much as possible. In some respects, the Gyeongseongbu was able to manage sanitation projects in this way because it was the Gyeongseongbu. The scale of Gyeongseongbu's expenditures was by far larger than those of other prefectures.

Analyzing the expenditure settlement of Gyeongseongbu sanitation projects in the 1930s, before the full-scale mobilization period, is meaningful in terms of observing the largest sanitation

projects undertaken in colonial Korea. However, while this article has examined the sanitation projects of Gyeongseongbu as a “capital,” it could not delve deeply enough into the aspects where the colonial nature of Gyeongseongbu as a “colonial” capital becomes apparent.

Keywords Gyeongseongbu Sanitation Division, sanitation projects, sewage cleaning,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xpenditure settlement

〈부록〉

〈표 1〉 검미비(결산액) (단위: 원, %)

	보급	잡급	수용비	잡비	합계(결산)	예산	차액(예산-결산)	보급	잡급	수용비
1927	2,730	1,859	787		5,376	5,993	617	50.8%	34.6%	14.6%
1932	2,363	1,811	462		4,636	5,315	679	51.0%	39.1%	10.0%
1934		3,679	554	20	4,252	4,771	519		86.5%	13.0%
1935		3,829	743	17	4,589	5,060	471		83.4%	16.2%
1936		4,031	756	15	4,803	5,059	256		83.9%	15.7%
1937		4,324	516	16	4,856	4,842	-14		89.1%	10.6%
1938		4,217	528	14	4,759	4,934	175		88.6%	11.1%
1939		4,290	666	18	4,975	5,125	150		86.2%	13.4%
1940		4,897	700	16	5,613	5,804	191		87.2%	12.5%
1941		4,757	591	14	5,362	6,219	857		88.7%	11.0%

〈표 2〉 위생시험비(결산액) (단위: 원, %)

	보급	잡급	수용비	잡비	합계(결산)	예산	차액(예산-결산)	보급	잡급	수용비
1927	1,641	1,051	3,071		5,762	5,421	-341	28.5%	18.2%	53.3%
1932	2,695	3,074	3,423	17	9,209	9,249	40	29.3%	33.4%	37.2%
1934	2,410	4,220	4,117	14	10,760	12,107	1,347	22.4%	39.2%	38.3%
1935	2,480	5,440	4,402	25	12,348	13,421	1,073	20.1%	44.1%	35.6%
1936	3,174	5,802	4,390	26	13,392	13,583	191	23.7%	43.3%	32.8%
1937	2,754	6,186	4,198		13,159	15,067	1,908	20.9%	47.0%	31.9%
1938		5,089	4,135	30	9,254	10,266	1,012		55.0%	44.7%
1939		4,562	4,926	35	9,523	10,390	867		47.9%	51.7%
1940		5,182	4,839	26	10,047	11,248	1,201		51.6%	48.2%
1941		5,323	6,035	466	11,824	12,643	819		45.0%	51.0%

비고: 1941년 잡비에 시험동물비 포함

〈표 3〉 묘지비(결산액) (단위: 원, %)

	보급	잡급	수용비	수선비	잡비	합계(결산)	예산	차액(예산-결산)	보급	잡급	수용비	수선비	잡비
1927						1,574	1,958	384					
1932		1,744	163	100	164	2,171	2,590	419		80.3%	7.5%	4.6%	7.6%
1934		2,719	358	301	180	3,558	3,683	125		76.4%	10.1%	8.5%	5.1%
1935		2,502	284	197	192	3,174	3,643	469		78.8%	8.9%	6.2%	6.0%
1936	612	3,241	607	138	241	4,838	5,198	360	12.6%	67.0%	12.6%	2.9%	5.0%
1937	626	4,293	428	146	271	5,764	5,768	4	10.9%	74.5%	7.4%	2.5%	4.7%
1938		4,075	484	133	209	4,902	5,443	541		83.1%	9.9%	2.7%	4.3%
1939		6,150	602	234	284	7,270	7,789	519		84.6%	8.3%	3.2%	3.9%
1940		7,164	948	233	430	8,775	9,583	808		81.6%	10.8%	2.7%	4.9%
1941		9,247	1,422	245	445	11,359	11,671	312		81.4%	12.5%	2.2%	3.9%

〈표 4〉 장재장비(결산액) (단위: 원, %)

	보급	잡급	수용비	수선비	합계 (결산)	예산	차액 (예산-결산)	보급	잡급	수용비	수선비
1927					10,357	10,738	381				
1932	821	3,168	5,561	625	10,197	12,651	2,454	8.0%	31.1%	54.5%	6.1%
1934	847	3,601	8,507	1,489	14,487	12,986	-1,501	5.9%	24.9%	58.7%	10.3%
1935	840	3,887	10,662	3,765	19,289	20,668	1,379	4.4%	20.2%	55.3%	19.5%
1936	954	4,443	12,379	2,401	20,255	20,828	573	4.7%	21.9%	61.1%	11.9%
1937	1,224	5,286	15,487	1,974	24,111	24,632	521	5.1%	21.9%	64.2%	8.2%
1938		5,428	20,646	1,783	27,940	29,285	1,345		19.4%	73.9%	6.4%
1939		5,492	28,144	2,961	36,743	37,274	531		14.9%	76.6%	8.1%
1940		6,741	34,121	3,295	44,297	46,929	2,632		15.2%	77.0%	7.4%
1941		8,923	37,021	3,492	49,587	51,027	1,440		18.0%	74.7%	7.0%

비고: 잡비의 비중 0.5% 내외로 제외함.

〈표 5〉 도장비(결산액) (단위: 원, %)

	보급	잡급	수용비	수선비	합계 (결산)	예산	차액 (예산-결산)	보급	잡급	수용비	수선비
1927	2,898	9,281	3,098	1,097	16,443	16,594	151	17.6%	56.4%	18.8%	6.7%
1932	1,426	10,715	3,675	1,166	17,162	17,785	623	8.3%	62.4%	21.4%	6.8%
1934	850	12,249	3,355	1,267	18,018	18,794	776	4.7%	68.0%	18.6%	7.0%
1935	864	12,794	3,697	987	18,369	17,982	-387	4.7%	69.7%	20.1%	5.4%
1936	1,515	14,780	4,052	1,191	21,593	20,943	-650	7.0%	68.5%	18.8%	5.5%
1937	1,644	15,414	4,783	1,380	23,347	23,791	444	7.0%	66.0%	20.5%	5.9%
1938		15,039	4,697	1,292	21,160	22,277	1,117		71.1%	22.2%	6.1%
1939		16,184	6,256	1,831	24,407	24,610	203		66.3%	25.6%	7.5%
1940		18,027	5,427	3,346	26,891	28,364	1,473		67.0%	20.2%	12.4%
1941		21,835	6,675	2,351	31,124	31,988	864		70.2%	21.4%	7.6%

비고: 잡비의 비중 1% 미만으로 제외함.